

2015년 특화프로그램 규정

(원화 프로그램)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꿈꾸며 산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나 ‘샹그리라’를 찾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열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열망을 연결하여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원예이다. 원예란 식물을 이용하고 이를 가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에게 단순한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치료를 하고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예치료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란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통하여 심신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녹색의 쾌적성(green amenity) 및 환경회복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1. 원예치료의 특성

최근 의학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원예치료와 같은 대체 치료로써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동물치료, 오락치료, 그리고 향기치료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원예치료는 다른 대체치료들과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원예치료의 다양한 치료적 특징

1) 생명을 매개체로 한다.

원예치료는 식물, 즉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치료법이다. 식물의 성장, 개화, 결실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무생물과는 다른 감응을 받게 되고 이것은 동물을 다루는 것보다 더 손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통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 상호 역동적이다.

원예치료는 대상자가 단순히 어떤 작업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식물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자가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주면서 잘 관리한다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나 씨앗을 파종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즉,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대상자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보면서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3)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

원예치료는 식물을 키워 수확물을 생산하고 그 수확물을 이용하여 여러 장식품을 만들어 주위 환경을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을 자르고 꽃과 잎을 따서 눌러 말리고, 열매를 따면서 생명을 파괴한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단순한 생명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를 하고 누른 꽃을 이용해 카드나 액자를 만들고 열매로 플라주 등을 만들면서 파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4) 본능적 그리움에 바탕을 둔다.

식물의 잎이 가진 녹색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유연성을 갖게 하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낙원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연보다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원예치료는 이런 인간 본연의 색인 녹색을 가까이서 느끼고, 소홀했던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생명을 돌보는 치료방법이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보호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남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원예치료는 대상자로 하여금 식물을 돌보게 하고 또 자신이 돌보는 식물이 성장하여 수확물을 얻으면서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2. 원예치료의 필요성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였던 지난 19-20세기 동안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그리고 기술화된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이 향상되었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들 즉, 공해, 수질오염, 쓰레기, 도시의 범죄, 녹지의 감소,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의 질’은 ‘삶의 질’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이카루스(Icarus)’적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원예란 자연(nature: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밖의 힘으로서)과 문화(culture: 인간의 통제로서)의 중간지점을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탈자연화로 신의 섭리를 부정하고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우울감과 모순적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연에의 회귀’ 혹은 ‘샹그리라’를 찾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열망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의식주가 삶의 전부가 아닌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첫째로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활동의 범위와 효과를 보다 넓게 이해함으로써 녹색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둘째는 원예의 새로운 분야인 원예치료를 알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주거환경내 뿐만 아니라 직장, 도시 내에서 ‘녹색의 쾌적성(green amenity)’을 통한 삶의 질은 높이는데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원예치료의 역사

원예치료의 적용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험에 의존된 것이다. 예로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정원에서 일하게 하거나 산책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증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식물의 치료 효과는 정신병에 관한 학문이 과학으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발달하였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 나라는 최근에 도입되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지역으로 구분하여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원예치료가 현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부터이며 1789년 Institute of Medicine and Clinical Practice의 Benjamin Rush교수가 들에서 일하는 정신병 환자 중에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발견하고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것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약 100년후인 1878년 미시간주의 Pontiac주립병원에서는 원예활동 및 농경작업을 정신치료의 중요한 과목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펜실바니아의 수용소 정신병원(현재의 필라델피아 Friends Hospital)에서는 농장 대신에 그늘진 산책로, 조용한 숲속길, 흰히 트인 무성한 목초지를 주의 깊게 고안한 공원같은 시설을 만들어 치료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후로 Johnston이 정신지체 아동교육에 중요 하다고 하였다.

원예치료의 발전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발전을 보았다. 원예치료가 상이군인의 심리.정신의 치료도구로써 사용되면서 인간-원예 관계는 심리학자와 의사들에 의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 목적을 위한 원예의 실질적인 사용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955년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에서 학사학위를 주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대학원과정인 캔사스 주립대학에서 1975년에 시작되었다. 1973년에 원예를 통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국 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rough Horticulture (NCTRH))는 1) 원예의 치료적 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망 구축 2) 원예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3) 원예치료 학자들의 전문적인 발전과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NCTRH는 1987년에 미국원예치료협회(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AHTA)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원예치료협회는 원예치료사의 자격 심사기준을 만들고 관계문헌 및 도서출판, 회의주선,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일을 했고, 장애인의 원예고용(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원예이용 직업알선) 계획의 절대적인 후원자이기도 하고, 식물과 꽃이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영향을 문서화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PPC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다.

2) 유럽

유럽에서도 농경활동이 건강증진과 치료효과에 유효하다는 기록이 17세기말부터 있었다. 1699년 영국에서는 Leonard Maeger라는 사람이 “영국의 정원사(English Gardener)”라는 농업관계 정기 간행물에 원예의 치료효과에 대해서 보고했다. 1806년 스페인의 한 병원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대한 농경활동의 효과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 또 1800년대 초기에 북스코틀랜드의 Gregory라는 의사는 자신의 농장에서 정신병환자들에게 일을 시켜 보았더니 정신병 치유에 현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1930년대에 영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과 치료에 관한 법을 만들어 정신병환자를 병원의 부속농장에서 작업시키도

록 하였다. 1936년 영국에서 설립된 작업치료사협회(Association of Occupation Therapist)가 정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위한 특수치료로 원예치료의 이용을 알려 치료도구로서 원예치료의 수용이 보다 중요한 수준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후로 1960년부터는 옥스포드에 있는 Nuffield 정형외과 센터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정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후로 노인병 시설과 정신장애 아동의 시설에서 정원이나 실습농장에서 이용하게 되었으며, 1978년에는 영국에서는 원예치료 및 농업협회(Horticultural Therapy and Rural Training Association - H.T.)가 탄생되어 오늘날과 같은 원예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정신지체의 직업재활의 목적으로 원예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정신지체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에게 원예치료를 적용하여 이용대상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원예치료의 소개는 1980년대 초에 알려졌지만 인식되지 못하다가 1988년 장애인 올림픽 이후로 장애인의 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원예를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보급되었고, 병원에서는 치료·재활의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1997년에 '한국원예치료연구회'가 결성되어서 원예치료를 보급하며 교육·연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예치료에 관한 국내외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homepage(<http://www.khta.or.kr>)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국내 최초로 '원예치료과정'이 개설되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 외 현재 호주, 일본 등에서도 원예치료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원예치료의 대상

과거에는 원예치료를 정신지체인, 정신병자를 주로 대상으로 취급하였지만, 현재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운동기능 장애인, 죄수, 마약중독자, 어르신, 과잉 여가자에 이르기까지 이용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전문직종인에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원예치료도 개발되어지고 있다.

5. 원예치료의 효과

원예치료는 원래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지체아에게 원예활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주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 효과도 다양해지고 있다. 원예치료는 무생물이 아닌 생물체를 대상으로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뛰어나며, 그 효과를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효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f, 1981; 손 등, 1997).

1) 지적인 효과

원예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므로써 다른 사람들과 없었던 대화가 오가고 의사소통도 쉬워진다. 즉, 원예활동은 그 호기심을 야기시키고 관찰력이 예민해지고 관찰의 결과를 해석하므로써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배양된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반복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증가와 기술 훈련의 효과를 갖는다(Relf, 1981; Shairo and Kaplan, 1998). 마지막으로 식물을 가까이 대함으로써 오감을 통해 주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계획, 준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감각과 지각 능력을 증가시킨다.

2) 사회적인 효과

원예활동은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럴 경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그룹내의 한 사람에게 그룹 일을 책임지게 하면 지휘자의 특성과 임무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립의 정신도 키워 줄 수 있다. 또 원예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예를 잘 아는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도 갖게 된다. 아울러 원예활동에 의해 생산한 채소, 과일, 꽃 등의 생산물이나 자기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험도 갖게 되어, 지지도 및 대인관계가 향상됨은 물론 자기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Williams, 1990; 손 등, 1997; Shairo and

Kaplan, 1998; 김, 1999).

3) 정서적인 효과

원예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원예활동 내에서 분갈이나 꽃꽂이 등의 활동에서 파괴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단순한 파괴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름다움이나 새로운 개체의 생산을 느끼게 함으로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창의력과 자아표현을 계발시킨다(Relf, 1981; Airhart와 Kathleen, 1990).

4) 신체적인 효과

원예치료는 소근육 운동과 대근육 운동을 함으로 신체의 발달을 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활동의 장소에 따라 흥미를 갖고 신체운동을 하게 함으로 필요한 신체적 운동을 실시 할 수 있게 한다(Relf, 1981; Relf, 1990; 손 등, 1997; Shairo and Kaplan, 1998).

6. 원예치료의 적용

원예치료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은 적용이 치료적, 직업 교육적, 사회적, 혹은 여가적 목적 등 어디에 있던 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의 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원예치료의 적용은 진단 및 준비단계(diagnosis and preparing phase), 계획단계(planning and preparing phase),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 그리고 평가단계(evaluation phase)의 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동적 방법(참여방법)과 수동적 방법(관찰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여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원예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 방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보아진 경관, 실내환경, 혹은 개개 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부담 없이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객체적 치료효과는 식물자체가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인간이 치료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1) 주체적 치료

주체적 치료 중 참여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식물의 재배 프로그램과 식물의 이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한 예와 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원예적 활동과 특징

활 동
특 징
식물의 번식
식물의 번식으로 할 수 있는 파종이나 삽목은 작업테이블만 있으면 그다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대상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화분심기
용기재배
화초에서 채소재배까지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병동에서도 가능하다. 소수 혹은 개인,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맞다. 근채류 이외는 거의 재배가능하며, 1-2개월 혹은 비교적 단기재배의 엽채류, 20일 무우 등의 미니채소, 화초 등이 좋다.
수경재배
히아신스 등의 구근꽃, 무순, 발아한 어린 싹을 이용하는 채소, 토마토 등 흙이 없어도 재배 가능하다.

관엽식물의 관리

소수, 개인, 이동이 불편한 이용한 관엽식물재배도 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종류에 따라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거의 주년재배가 가능하다. 소수, 개인,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적절하다. 여러 사회복지시설 등에, 키운 화분을 각 부서에 빌려주어 그 관리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행할 수도 있다.

채원,화단 가꾸기

키워서 수확하기까지 3-6개월 걸리고, 계절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만성적인 재활환자에게 적절하다.

꽃을 이용한 장식품 만들기

꽃을 이용한 장식에는 압화, 꽃꽂이, 건조화 등 다양하게 있다. 이 중 꽃꽂이 재료는 키워서 수확하기까지 3-6개월이 걸리고, 계절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만성적인 재활환자에게 적절하다. 통상의 꽃을 이용한 장식품은 수공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수, 개인,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적절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각 대상자에게 적용을 한다. 한편, 관찰방법에 의한 원예치료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업장소나 주거 환경 내 실내식물을 두고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현대의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내에서 우리가 식물과 함께 생활할 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른 무생물적인 대상(예, 컴퓨터, 에어컨, 선풍기, 책장 등)과 함께 녹색의 식물을 보고, 느끼며, 식물의 이미지로부터 무엇인가를 형상화하며 생활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식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자체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식물이 인간의 정신생리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내식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파키라와 벤자민 고무나무 'Star light'를 보는 것과 책상과 책장과 같은 무생물을 볼 때의 뇌파를 비교한 바, 단순히 식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중 δ (델타)파의 현격한 감소와 α (알파)파가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각성상태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식물은 단순한 미적 가치를 능가하여 우리 인간의 정신생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2) 객체적 치료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직간접적인 관계없이 식물체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흔히 식물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로서 실내나 작업실에 배치를 하지만 식물은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실내에 식물을 배치할 경우 식물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식물은 탁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며, 여름철에는 실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반면, 겨울철에는 실내의 상대습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식물 종에 따라서는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하거나, 휘발성 살균물질을 방출하거나(예, 산림옥), 심신의 안정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 물질(허브를 이용한 aromatherapy)을 방출한다.

II 치매노인에게 원예치료의 적용

1. 치매의 정의

뇌의 변성이 점차로 진행되어지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기타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임상적 증후군

2. 치매노인의 임상증상

기억장애, 지남력장애, 주의력장애, 언어장애, 실행증, 실인증, 시공간기능장애
문제행동-배회, 망상, 환각, 반복질문, 반복행동, 공격행동, 성격변화 등

3. 치매노인에게 적용 시 원예치료의 목적

- 가. 식물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한다.
- 나.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통해서 촉각자극을 유도하여 촉각반응을 향상시킨다.
- 다. 작업을 이용해서 소근육의 발달을 도모하도록 한다.
- 라. 식물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을 하도록 한다.
- 마. 작업을 통해서 예전의 기억을 유발시키도록 한다.
- 바. 주기적인 작업을 통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한다.
- 사. 작업에서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 아. 작업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2. 원예치료 시 고려 사항

- 가. 치매노인의 수준에 맞추어서 한다.

나. 치매노인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다.

다. 노인에게 설명을 할 때에는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한다. 또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활동 목록을 만들어서 기억력을 자극하도록 한다.

라. 치매노인에게 언어적인 것으로 만 표현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태도(스킨십)로 종종 사용 한다.

마.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을 수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바. 치매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게 작업은 단순하며 반복되게 한다.

사. 치매노인의 상황과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조 스텝으로 하여금 지지하게 한다.

아. 준비물(기구, 도구, 독성이 있는 식물)이 치매노인에게 위험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다.

자. 식물의 선택에서 감각을 자극 줄 수 있으며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진 것을 선택한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한다.

차. 장소는 햇볕이 잘 들고 작업이 용이하며 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물품

① 진흙, 세라믹 유리용기 깨질 수 있으며 무기가 될 수 있음.

② 밧줄 노끈 끈 실, 리본, 전선, 구두 끈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목 조르거나 목을 맬 수 있음.

③ 비닐 백 ⇒ 질식 위험

④ 페인트 스프레이, 고무풀 ⇒ 독성흡입 시 황홀감

⑤ 날카로운 가위, 집게, 칼, 막대기, 말뚝

⇒ 자신이나 남을 자르거나 찌르고 상해를 입힐 수 있음.

⑥ 선인장, 장미 그리고 다른 가시식물 ⇒ 자해에 이용될 수 있음.

⑦ 독성 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 ⇒ 대상자가 먹을 수 있음.

⑧ 조개 껍질, 또는 수석 같은 공예품 ⇒ 무기가 될 수 있음

3. 원예치료의 적용 사례

1) 주간치매노인보호센터의 적용사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간치매노인보호센터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치매어르신의 우울이 감소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활동에서 언어 소통 능력, 자아개념 및 주체성, 욕구-충동적 적응력, 대인관계능력, 인지 및 문제 해결 능력, 숙련도와 직업 적응력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2) 치매 전문요양원의 적용사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치매 전문요양원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지기능, 우울, 문제행동의 차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치매 노인의 인지능력과 일상생활능력이 증가되었었고, 우울과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단순히 기능의 변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었다.

3) 외국의 사례

Vancouver에 있는 치매환자 수용시설인 Cedarview lodge의 치료정원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3개의 치료 정원과 환자들의 폭력형태를 비교한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곳의 환자들의 폭력 형태가 감소하였고, 정신적 피로나 우울 등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어르신 특화프로그램

수급자명			입 소 일		
키			체중		
생년월일		성별/연령		인정번호/등급	

현 질병상태현황(욕구사정의견)					

1. 프로그램 목표 및 진행정보

목 표	원예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므로서 다른 사람들과 없었던 대화가 오가고 의사소통도 쉬워진다. 즉, 원예활동은 그 호기심 을 야기시키고 관찰력이 예민해지고 관찰의 결과를 해석하므로서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배양된 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반복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증가와 기술 훈련의 효과를 갖는다(Relf, 1981; Shairo and Kaplan, 1998). 마지 막으로 식물을 가까이 대함으로서 오감을 통해 주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계획, 준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감각과 지각 능력을 증가시킨다.				
책임제공자	(인)		프로그램명	원예프로그램	
준 비 물	텃밭 등		제공장소	기관내 프로그램실 및 개인 침실	

2. 프로그램 기본 제공항안내

1) 간호 및 요양팀에서는 어르신들의 당일 컨디션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신체 및 건강 정서 상태를 파악함)	
2) 판단후에는 원예장소로 이동한다..	
2) 주관자가 인사를 하면 어르신과 근로자들도 함께 웃으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한다	
3) 어르신들에게 원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	
4) 서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후 함께 다시 인사를 하고 마무리한다.	

3. 제공 사진
